



## 도요새, 환경의식 일깨우는 교양문고 펴내

작은 판형에 재생지 사용한 게 특징

지난해 10월 환경운동연합이 설립한 도서출판 '도요새'가 최근 환경관련 교양문고인 <도요새문고>를 펴냈다. 이번에 나온 1차분은 《지구에서 사라진 동물들》《사막의 우물 파는 인부》《코뿔소는 죽지 않는다》 등 3권. 도요새의 최승호 주간은 이 문고의 특징이 “휴대하기 쉬운 크기로 제작했으며, 《지구에서...》을 제외한 두권은 재생지를 사용한 점”이라고 밝혔다.

《지구에서...》은 17세기에서 20세기까지 지상에서 사라진 동물들의 생존투쟁과 멸종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지난 1995년 4월부터 1년 동안 일본 NHK 위성방송을 통해 전파를 탄 <20세기 생물의 목시록>을 단행본으로 엮었다. 이 책은 멸종동물 가운데 100여종을 선정해 동물의 생태와 흥망을 소개하고 있다. 학명·분류·분포상 등의 자세한 자료와 일러스트가 자료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사막의...》는 소설가 최성각씨의 엮편소설 30편을 모은 생태소설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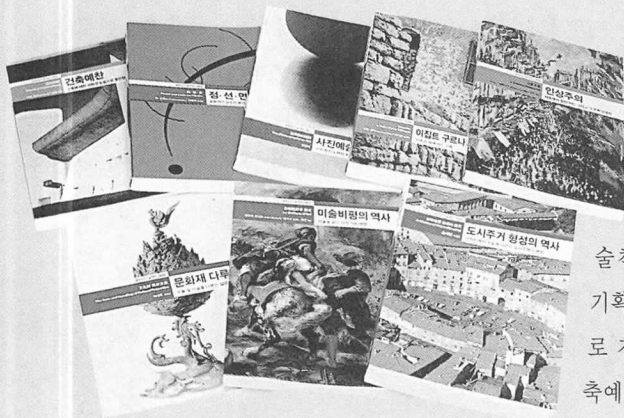
월간 《함께 사는 길》에 4년간 연재한 <나뭇잎 만한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다. 동강문제와 새만금 갯벌, 충선시민연대, TV광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지은이의 단상을 엿볼 수 있다.

《코뿔소는...》는 최승호 시인의 생태시선집이다. 그동안 펴낸 시집에서 생태·환경문제를 형상화한 시 78편을 가려 뽑았다. <통조림> <자동 판매기> <누가 시화호를 죽였는가> 등 환경오염 실태를 고발한 시부터 <주전자> <복어> <흐린날> 등 최시인의 대표작을 실었다.

최승호 주간은 “문고 출간을 계기로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환경의식을 일깨울 수 있는 좋은 책들을 내겠다”고 앞으로의 편집방향을 밝혔다. 도요새는 곧 자연을 주제로 한 사진작가 이지누씨의 작품집을 펴낼 계획이다. — 김정은 기자

## 전통의 <미술신서>, 시대 변화에 맞춰 새롭게 단장해

열화당, 새 기획 시리즈 <열화당 미술책방> 출간



미술 전문 출판사 열화당이 <열화당 미술책방>을 새롭게 기획하면서, 1차분으로 지오 폰티의 《건축예찬》(김 원)을 비롯

한 8권을 한꺼번에

출간했다. 이 기획물은 지난 1977년부터 출간돼 미술계는 물론 일반독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미술신서>를 시대변화에 맞게 재구성한 것. <미술신서>는 그동안 70여종의 책을 펴냈다.

<열화당 미술책방>의 편집원칙은 새로운 시각매체를 폭넓게 수용한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와 함께 <미술신서>의 장점으로 꼽혔던 동서양의 예술교전을 지속적으로 펴내고, 국내 학자들의 이론적 성과도 출간할 계획이다.

1차분의 특징은 <미술신서>로 출간된 것들 가운데 여전히 유용한 주제 의식을 담고 있는 책을 가려뽑아 재출간했다는 점. 이들 책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미술론. 바실리 칸딘스키의 《점·선·면》(차봉희)은 예술가이자 사상가인 지은이가 1922년부터 바우하우스에서 강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부제대로 ‘회화적인 요소의 분석을 위한 논고’의 성격을 띠고 있다. 모리스 세릴라즈의 《인상주의》(최 민)는 인상주의 입문서. 인상주의가 태동하게 된 미술사적 맥락과 다양한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다. 앙드레 리샤르의 《미술비평의 역사》(백기수 외)는 미술을 읽는 다섯가지 방법을 다루고 있다.

두번째는 건축관련서. 지오 폰티의 《건축예찬》은 이탈리아 건축가인 지은이의 건축에 관한 단상을 모았다. 하싼 화티의 《이집트 구르나마 이야기》(정기용)는 1945년 이집트 ‘구르나마를 이주건설 계획’을 담당했던 지은이의 작업기록이다. 손세관의 《도시주거 형성의 역사》는 기념비적 건축물 위주의 서술방식에서 탈피, 보통사람들의 주거문화에 초점을 맞춘 서양건축사다.

세번째는 일종의 개론서 성격을 띠고 있다. 한정식의 《사진예술개론서》는 지은이의 체험적 사진론으로, 사진세계에 입문하려는 독자들에게 적절한 책이다. 이내옥의 《문화재 다루기》는 큐레이터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다양한 기술을 소개한 매뉴얼이다. — 이권우 기자